

건강마을사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Application of Healthy Village Program in Local Area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건강도시, 건강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취약계층이 증가할 전망이다. 예방적인 건강증진의 기회조성과 경제사회적 안정을 위해 건강마을사업이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마을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신체적 건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 근본적인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 마을이 경제적 소득 안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그에 따른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건강 마을 공동체가 자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소외계층에게 확대보급될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해야 한다.

1. 서론

건강100세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에 건강도시, 건강마을사업의 개념이 도입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설립된 바 있고, 지금까지 60개의 정회원도시가 있다. 건강도시사업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가 건강영향평가이다. 건강영향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건강의 결정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정책, 사업에 대하여 사전적인 점검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건강도시사업과 건강마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의 결정요인중 변화가능한 요인

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 지원, 교육적 지원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건강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질병이나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은 가장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생각할 때 개인이 속한 인구집단의 건강이 중요한 보건문제가 될 수 있다. 인구집단의 건강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개인이 속해있는 장소에 따라 보건문제가 분류되기도 하지만 인종이나 연령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시설이 들어서게 될 때 그로 인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도입되는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건강도시, 건강마을사업에 있다.

건강한 마을(Healthy village)사업은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사업의 장소(setting)접근에서 나온 하나의 형태이다. 건강도시사업과 건강마을사업 그 기본 개념은 같아서, 건강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보건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건강한 마을은 건강을 위한 여러 장소 중의 하나이다. 건강한 마을은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마을개발에 초점을 둔 환경조성사업이다. 장소접근법의 핵심은 장소의 신념과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고, 장소 안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보호받는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공동 협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중심접근법은 ‘건강이란 사람들이 배우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는 일상 생활의 장소 안에서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Ottawa 현장의 건강증진의 정의¹⁾를 뒷받침 해 왔다. 그 내용은 대도시, 섬, 도시, 지자체, 지역사회, 시장, 학교, 직장, 건강관리 시설들을 포함한다.

건강마을이 건강도시사업과 다른 점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

진함과 동시에 지역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초기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저개발국가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건강마을사업이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발되어 왔고, 만성질환치료비용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건강마을사업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건강마을 및 관련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 및 확산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강 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성화 마을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과 농촌관광마을이 있다. 농촌관광마을로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문화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체험마을이 있다(국회에산정책처, 2006). 이외에 건강과 관련된 마을로는 녹색마을, 건강도시의 건강마을 등이 있다. 건강도시의 건강마을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2008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생활터중

1)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리를 증가시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process)임.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 정의(1986).

심 사업으로서 전국 53개의 건강도시중에서 10개의 건강마을사업이 있다.

1) 녹색마을

녹색성장의 의미는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이다.²⁾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05년)’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가 채택되어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OECD 각료회의이사회(’09.6.24) 선언문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지향한다.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에는 저탄소형 국토개발, 생태공간조성확대, 녹색교통체계, 대중교통활성화, 녹색소비를 위한 녹색시장 조성 등이 포함된다. 생활의 녹색혁명은 환경의 보존을 최대화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녹색소비란 합리적인 소비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소비생활을 의미한다. 녹색 마을이란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마을을 의미한다. 즉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적고,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소수의 가구가 사는 마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녹색마을은 지역경제를 촉진시키

는 방안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관광마을 등이 그 예이다.

녹색마을의 배경에는 생활의 녹색혁명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있다. 특히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대국민 녹색성장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기반구축,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마을조성 및 운동전개, 생태관광활성화 등을 주요 전략과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³⁾

녹색마을과 관련된 형태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다. 원래 이것은 농촌체험관광의 일환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아름마을가꾸기(행자부)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외부의 투자에 의한 개발보다는 기존의 농촌문화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정재용, 2008).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분부는 지역 엔지오단체들과 함께 ‘녹색마을 의제21’을 추진해 왔다. ‘녹색마을 그리기와 마을 의제21’을 주제로 2000.10.31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역 풀뿌리 엔지오들과 함께 녹색마을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⁴⁾ 녹색마을 만들기는 먼저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뒤 추진 주체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벌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지자체와

2)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3) 녹색성장위원회(2009). 녹색성장5개년계획(2009~2013).

4)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환경과 개발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환경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지는 취지에서 유엔 개발 회의가 각국에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정보망. 현재 전 세계 45개국 정도가 개설, 운영하고 있음.

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 강원도 태백의 폐광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경기도 양평의 환경농업마을, 충남의 전통문화와 역사경관이 어우러진 마을만들기 등이 있다. 영국의 친환경 마을 ‘토티네스’에서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자연주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곳이다. 먹을거리는 가급적 스스로 조달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 텃밭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식자재를 공수하고 있다. 새 건물을 지을 때 진흙과 건조 등 환경 친화적 건축 재료만 이용하고, 냉난방도 태양열 등 최대한 자연을 이용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녹색 건강마을 조성 프로그램’은 ‘건강마을 가꾸기’와 ‘녹색 마을 가꾸기’로 운영된다. ‘건강마을가꾸기’는 마을주민들의 혈당, 혈압, 골밀도 등 측정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체조, 금연, 절주, 비만 예방교실 등을 운영해 개인별 건강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녹색마을 가꾸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안먹는 약 수거운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폐비닐 수거로 쾌적한 마을 환경을 가꾼다.

마을의 녹색화와 관련된 한 건강증진 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정원에 녹색채소를 재배하게 함으로써 저소득가정에서 채소섭취를 늘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Faber et al, 2002). 녹차재배지역에서 녹차잎의 소비가 만성위축성위염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Shibata et al, 2000). 특히 저소득가정일수록 아동비만 등 만성질환위험요인이 큰 것으로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운 식물재배를 적용한 녹색환경조성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마을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농촌관광마을

농촌관광마을은 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발전한 형태의 마을이다. 농촌전통체험마을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이 두가지 마을이 체험형 관광사업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농촌관광마을이다. 농촌관광은 오랫동안 농촌의 사회경제적 개발과 재생의 효과적인 촉매제로 평가되어 왔다. 농촌관광의 특성은 체류기간이 1주일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농촌의 삶의 방식이나 자연과 가까이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윤유식(2007)의 조사분석에 의하면 농촌체험프로그램은 1박2일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기간이 길러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교육과 학습, 건강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고, 생활편의시설 개발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⁵⁾

농촌관광마을은 전통적인 농업형태의 산업이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산업형태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산업이 농촌지역

5) 윤유식(2007). 강원도지역 농촌관광마을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을 방문객특성 및 선호도분석. 강원발전연구원.

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은 과거의 농가 개별 보조사업과 달리 마을 공동사업만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⁶⁾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에 있어 주민참여의 특징과 그로 인한 마을만들기의 효과를 분석한 안종현(2008)의 논문에서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농촌관광마을 만들기가 진행된 광양시 봉강면 '신촌마을'과 장흥군 회진면 '진목마을' 주민의 주민참여의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마을 주민은 '도로나 주택, 상하수도 등 마을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했고, 진목마을 주민은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신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참여 이유에 있어서 신촌마을 주민은 '미래 효과를 위해'를 가장 높은 이유로 생각한 반면, 진목마을 주민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한다.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활성화가 잘 안되는 원인은 인력부족도 문제였으나 자체소득발생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민이 공통적

으로 인식하는 요소였다. 왜냐하면 체험프로그램에는 음식판매, 민박, 특산물 판매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업적 요소들을 연계하여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종현(2008)의 논문에서도 마을의 자원과 프로그램이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촌마을은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방문함으로써 마을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해 마을의 생활편의 시설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황토찜질방 운영을 통해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었다. 진목마을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쇼핑몰을 통하여 호박 판매와 '못생긴호박축제'를 통한 음식, 특산물 판매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다목적체험관 등 시설물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마을별로 특산물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촌마을과 진목마을 모두 배, 호박 등 마을특산물의 판매가 체험마을로 선정되기 전보다 증가하였다.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마을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마을 모두 마을리더와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과 분쟁이 있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두 마을의 리더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신촌마을은 체험마을추진위원장과 마을 이장을 겸임하는 마을리더가 뛰어난 리더십으로 마을을 이끈 결과, 2007년에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시범마을에 선정되어 마을에 3억원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진목마을은 사

6) 안종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광주: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업출범당시 이장이 마을사무장으로 직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위원간 갈등이 생겨 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어 마을의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한 두 마을의 성과를 평가해 볼때 두 마을 모두 기본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됨에 따라 정주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특성이 있었다. 특산품인 배와 호박이 마을별로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됨으로써 사업 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판매와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운영과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마을리더와 주민들간에 협조체계가 미흡한 단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부족한 경우 지속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설정이 되어야 하고, 마을 주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등이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업내용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이 목표설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리더의 리더쉽도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관광마을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결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용순(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다룬 연구를 하

였는데 특히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신뢰구축,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제도와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많은 경우 사회관계가 주된 내용이고, 사회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비실체적인 자본형태를 의미한다. 객관적인 사회자본의 형태로는 구조적인 제도, 조직체 참여 등이 있고, 보다 주관적인 형태로는 공동체의 가치공유, 사회관계에 대한 신뢰 등이 있다.⁷⁾

농촌지역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신뢰구축,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제도와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인지적 측면이 농촌관광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투여됨으로써 주민통합이나 삶의 질 만족, 그리고 추가사업과 관련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중요시해야 한다. 농촌관광과 지역적 특성과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우선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 통합화의 기반 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문제를 줄일 수 있고,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를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주민간의 신뢰나 마을의 공통적 규범인식 등과 관계가 있는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관광마을사업은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볼 수 있기

7) 박용순(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수원: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때문에, 이 경우 행정적인 지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의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통합은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이 있으며, 이는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마을의 단합과 협동, 그리고 주민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주민의 사업의 추진주체로써 의미는 단순한 참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문화적인 동질감과 공동체의 복원 등 마을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3)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이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⁸⁾ 2005년에 100개 마을에 대한 신규사업을 수립하였고, 2012년까지 800개 마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⁹⁾ 현재는 334개 마을이 있고, 2016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42,000천원에서 45,000천원정도가 각 마을에 지원었고, 2010년부터는 지방비를 포함하여 각 마을마다 연간 50,000천원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이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1993년에서 1998년까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노인생활지도마을시범사업이 있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마을당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여 219개 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문화전승지반조성, 봉사활동 및 공동부업, 교양 및 건강관리교육 등을 추진하였다.¹⁰⁾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과 사회활동, 환경, 소득 및 경제 등 4가지 영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개발조성하고 농촌 다문화 가족의 상호작용 및 생활농업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영역별 효과분석에서는 4가지 영역중 건강관리분야와 환경정비분야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08).

다른 연구에서도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여성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으며,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활동의 증가가 나타났고 마을단위로는 쾌적한 마을환경조성, 농촌생활의 활력소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¹¹⁾.

8) <http://www2.rda.go.kr/jangsu/default.asp>

9) 농촌진흥청(2008). 농촌지도사업보고서.

10) 도란주(2007). 농촌건강장수마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적용과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허미영·공미혜(2007). 농촌마을 활성화와 성별요인: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을 중심으로. 農村社會, 17(2), pp.155~182.

4) 생태마을, 슬로우 시티

생태마을사업은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의 하나로 에코시티, 그린시티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생태마을과 비슷한 형태인 슬로우시티는 현대인의 속도 지향적 삶은 사회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대안적 삶을 제안하는 사업이며 운동이다. 슬로우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국내에 도입되고 있다. 슬로우시티는 빠르고 단일화된 가공되는 생산품이 쏟아지는 세계에 대한 저항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문화운동이다.¹²⁾

2008년 9월 현재 13개국 108개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4곳이 선정되어 있다(전라남도 담양군, 완도군, 신안군, 장흥군).¹³⁾

원지윤(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환경 분석, 정책 추진 현황 분석의 두 가지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 문화환경 분석은 국내 슬로우시티 네 지역의 일반현황과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 관광자원, 생활자원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았다. 정책 추진 현황 분석은 슬로우시티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과 정책 추진 현황 평가의 두 가지를 실시하였다. 슬로우시티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은 담양군, 장흥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책 추진 현황 평

가는 평가 틀을 통해 국내 네 지역과 영국 아일샴(Aylsham)과 비교를 통하여 정책별, 지역별로 슬로우시티 정책 추진 현황을 평가하였다.

슬로우시티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 분석 결과, 슬로우시티의 가입과 함께 가져올 여러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가치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담당 인력 부족, 예산확보의 어려움, 지자체의 일시적이며 부족한 관심도 등이 사업 추진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 현황 평가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슬로우시티의 정책 추진은 대체로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관 정비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농수산업의 활성화에 비해 지역 문화의 보호 및 발전, 지역성의 발굴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미비하여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제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과 지역민들의 인식 확대 정책에 대한 고려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우시티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구의 별도 구성, 지역민 및 공무원 대상의 지속적 교육 실시,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 기본계획 수립,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현지특산물 생산 및 판매 정책 추진 시 차별성 부여, 관광객 수용 정책과 지역민 인식확대 정책의 균형 유지가 국내 슬로우시티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

12)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Cittaslow&printable=yes>

13) 원지윤(2009). 한국 슬로우시티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담양, 완도, 장흥, 신안을 중심으로. 인천: 인하대 대학원.

3. 논의 및 결론

정책적인 면에서 건강마을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건강관련 유사 마을은 지역개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 및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서비스를 주는 형태의 건강마을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기존의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건강장수마을로 알려진 곳의 특징은 정책적 환경보다는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에 더 중점이 있다. 식단의 특성, 개인의 사회적 참여도, 운동 실천 등이다.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알려진 블루존(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일본 오키나와, 미국 로마리다 등)주민의 식단의 특성으로는 저칼로리, 저지방의 채소·과일 채식위주 식단, 특히 콩 제품을 많이 섭취한다. 다량의 수분섭취를 특징으로 한다. 개인적 특성은 계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목적의식의 소유, 가족이나 이웃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심리적·신체적 지원망 존재, 고생의 경험이나 종교의 소유는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의 기전이 된다. 건강 행위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안에서 계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개발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자원봉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돌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보건소를 이용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5세 노인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 시스템 구축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건강마을사업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에 목표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신체적 건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 근본적인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 마을이 경제적 소득 안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그에 따른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건강 마을 공동체가 자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소외계층에게 확대보급될 수 있는 사업을 확보해야 진정한 건강마을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